하늘사랑

NOVEMBER 2026
vol. 545

11

cover story
단풍나무 숲의 가을
2026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김미영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하늘사랑

vol. 545

11

NOVEMBER 202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6년 11월 5일
발행인 이미선
편집장 민현주
편집기획 박소현, 이호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ver story
단풍나무 숲의 가을
2026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김미영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 '기상이의 전국 지자체 캐릭터 협업 쇼폼' 프로젝트

04
일주일 뒤 날씨, 더 자세하게 더 촘촘하게

06
초록빛 미래를 바람과 햇빛에 싣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Weather Talk

08 첫눈을 기다리며

10 영화 '오디세이'(2026)

12 맛있는 계절_ 붉게 익어가는 늦가을 별미, 대하 볶음면

14 인생도 날씨도 완벽한 답은 없다

16 높은 하늘의 날씨는 어떻게 관측할까?
고층기상관측 알아보기

Theme Story

18 쉬는 날 뭐허멘? 제주기상과학홍보관 보레 가게!

20 섬과 바다, 기후와 사람을 잇다

22 오늘도 날씨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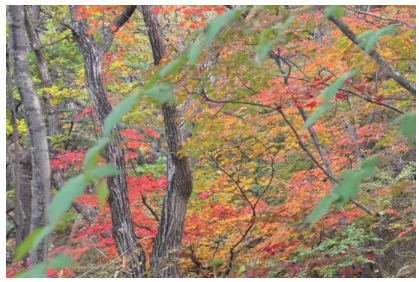
Report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25 Platform

26 오늘, 당신의 날씨







기상청 사람들

'기상이의 전국 지자체 캐릭터 협업 숏폼' 프로젝트

기상청 디지털소통팀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마스코트 '기상이'**가 전국 방방곡곡의 지자체 캐릭터 친구들을 만나 지역의 특성과 기상·기후 정책을 함께 알리는 '기상이의 전국 지자체 캐릭터 협업 숏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2021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최우수상! 기상청의 대표 마스코트 '기상이'가 거둔 성과입니다. 동글동글한 몸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기상이는 대중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으며 기상청의 대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해 온 기상이! 이제는 숏폼과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기상이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날씨와 지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정책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 용어와 정형화된 전달 방식만으로는 모바일 화면 속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상청의 대표 비주얼 자산인 '기상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책 전달 방식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숏폼'과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생성형 AI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배경과 역동적인 장면을 신속하게 시각화할 수 있어, 기획 단계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기상이가 전국 주요 거점을 찾아가 지역 대표 캐릭터와 만나는 '기상이의 전국 지자체 캐릭터 협업 숏폼' 프로젝트가 출발했습니다.🌈 귀엽고 개성 있는 두 캐릭터가 만나, 지자체는 지역의 랜드마크와 먹거리를 알리고 기상청은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기상·기후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각 기관의 강점을 담아, 서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국민에게 닿도록 '상생 협력의 판'을 설계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한 편씩 선보인 이 프로젝트는 어느덧 8편의 콘텐츠로 쌓이며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지역의 서사에 정책을 담다

지역 연계 콘텐츠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지역의 고유한 서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낸 대전광역시 '꿈돌이' 편은 대전에 '기후위기시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타난 악당을 두 캐릭터가 힘을 합쳐 무찌르는 서사로 기후행동을 유도하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빵을 위트있는 장치로 배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시각적 연출과 캐릭터의 화제성이 맞물려 SNS 통합 조회수 2.8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파급력을 입증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부기'와 협업할 때는 부산이 '국제영화제의 도시'이자 영화 〈해운대〉의 주 무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최적인 도시의 특성을 살려, 기상청의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인 '국외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콘텐츠에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정책은 대중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없기에, 당시 지진화산정책과 한태웅 주무관의 세밀한 자문을 거쳐 숏폼에 최적화된 영상 스토리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365일 가동되는 지진 현업실을 배경 삼아 긴박한 '재난 영화 예고편' 형식으로 풀어낸 이 영상은 정책의 실효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의 힘

2분 남짓한 짧은 영상 안에 정책 정보와 지자체 캐릭터의 개성을 함께 담으려면 디테일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의 '부기'와 수원특례시의 '수원이'는 두터운 팬덤을 형성한 인기 캐릭터로, 각자의 목소리와 개성을 살려 온 전문 성우진이 있었는데요. 대본을 전달받은 성우진은 캐릭터의 매력이 한층 돋보일 수 있는 다양한 말투와 생동감 있는 대사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협업은 캐릭터 고유의 매력을 살리는 동시에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수원특례시 편의 실마리는 역사 속 한 줄의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조선시대 수원 화성 축조 당시 극심한 가뭄이 들자, 정조대왕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만석거)를 축조했다'가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기상이가 조선시대 기상 관측을 담당하던 관청인 '관상감'의 관원으로 등장하는 픽션 사극을 연출했습니다. AI 기술로 웅장한 조선시대 풍경을 재현해, 과거의 가뭄 극복 역사와 현대 기상청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일상 속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매달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 온 협력 프로젝트! 10월에는 경상남도의 대표 캐릭터 '벼리'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편의 승부수는 '음악'🎶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처럼 귀에 쏙 박히는 대중적인 멜로디가 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일상에서 얻었습니다. 주말에 본가를 찾아 어머니가 즐겨 보시는 국악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다, 문득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단풍 서비스를 알리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을철 유용한 정보인 '유명산 단풍현황 서비스'를 중독성 강한 퓨전 국악 음원에 담아 선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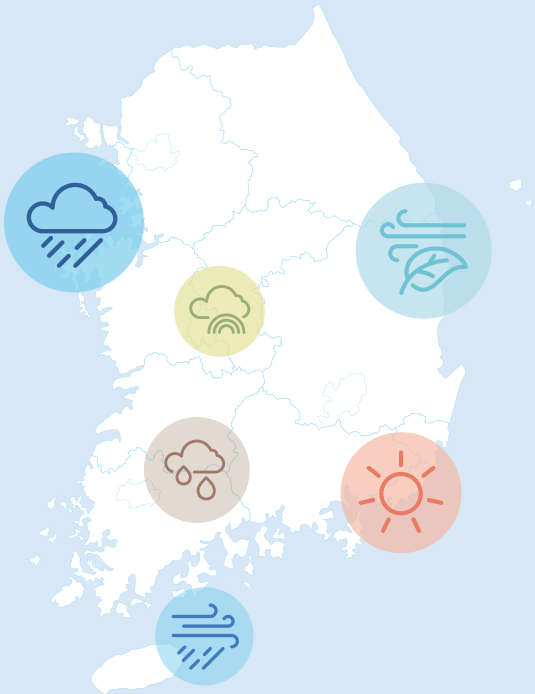
한 편의 숏폼, 그 짧은 영상 안에는 기상청의 정책을 더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긴 고민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에서 찾은 소소한 아이디어는 영상으로 하나둘 구체화됐고, 어느덧 8편의 영상으로 쌓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닿지 않거나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기상청의 주요 기상·기후 정책과 날씨 정보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기상이는 앞으로도 전국의 지역 캐릭터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번엔 기상이가 어떤 지역의 캐릭터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친근하고 유익한 기상청 유튜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해 주세요!

일주일 뒤 날씨, 더 자세하게 더 촘촘하게

신명섭 예보국



다음 주말 숙소 예약을 취소해야 할지, 야외 행사 날짜를 어느 날로 잡을지,
일주일 뒤 날씨 앞에서 우리는 늘 애매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조금 덜어 드리려 합니다.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상세 중기예보'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뒤를 미리 알려 드리는 예보

중기예보는 발표일을 기준으로 6일째부터 11일째까지의, 조금 먼 날의 날씨를 다룹니다. 다만 중기예보에는 늘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경기남부 쪽에만 비가 올 상황에도 '서울·인천·경기도에 비'라는 예보 하나 때문에 경기북부 여행을 준비하던 분들까지 일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과 오후 둘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깐 스치고 갈 비도 '오전에 비'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비는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만 적혔습니다. 열흘 뒤 하늘을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걸림돌을 걷어내는 일이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의 날씨를 시간대별로

이제 전국을 가로세로 5km의 네모칸으로 나누어, 칸마다 따로 날씨를 알려 드립니다. 같은 지역 안이라도 비가 내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어 보입니다. 시간도 6~8일 뒤는 3시간 간격, 9~11일 뒤는 6시간 간격으로 촘촘해졌습니다. '오후에 비'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비'가 되는 셈입니다. 벼 베기 날짜를 두고 며칠째 하늘만 올려다보던 농부라면, 그 지역에 비가 올지, 온다면 몇 시쯤일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말 캠핑장에 갈지 말지를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으로, 몇 시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만나는 날씨가 다르니까요.

가능성으로 보여드리는 비, 범위로 보여드리는 기온

비 소식은 이제 '거의 없음·조금·보통·높음'의 4단계 강수가능성으로 표현합니다. 먼 날일수록 예보는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감추고 딱 잘라 말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예보보다 강수 가능성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비슷한지도 기호로 함께 알려 드립니다. 며칠 치를 나란히 놓고 보면, 비 소식이 다가오는 중인지 멀어지는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온도 숫자 하나로 끝내지 않고, 더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폭까지 적습니다. 최저기온 3도라는 예보 옆에 낮게는 0도, 높게는 5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 범위가 함께 표시된다면, 농가에서는 서리 피해를 막을 준비를 하루 앞당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상세한 이유까지 들려 드립니다

아침 중기예보와 저녁 중기예보가 서로 달라 어리둥절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중기예보는 앞으로 저녁 6시에 하루 한 번 발표합니다. 대신 예보관이 왜 이런 날씨가 예상되는지, 아직 무엇이 확실하지 않은지를 자세히 풀어 적습니다. 호우나 대설, 폭염처럼 조심해야 할 날씨가 멀리서 보일 때는 위험기상 가능성도 미리 적어 둡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시간이 생기니까요.

지도와 그래프로 한눈에



글로만 읽던 예보가 그림으로 자세히 표현됩니다. 전국 지도 위에서 비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옮겨 가는지 색으로 드러나고, 궁금한 지역을 누르면 그날의 날씨 흐름이 그래프로 펼쳐집니다. 전국 상황을 한 번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권역별 중기예보 요약표도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중기예보 안내에서는 중기예보의 정의, 강수가능성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날씨누리 '특보·예보 〉 예보 종합 〉 중기예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6일, 새로운 중기예보를 만나 보세요

상세 중기예보는 더 많은 것을 알려 드리는 동시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알려 드리는 예보입니다. 지역은 더 좁게, 시간은 더 촘촘하게, 비 소식은 4단계 가능성으로, 어제와 견준 변화까지 함께, 달라진 중기예보로 다음 주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빛 미래를 바람과 햇빛에 싣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한 효 진 기상서비스진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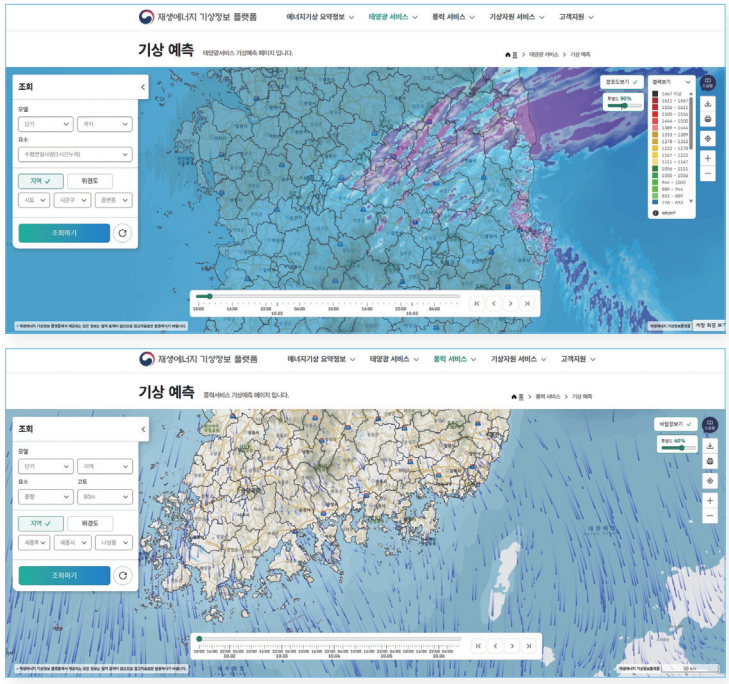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과 달리,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시시각각 요동칩니다.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하늘에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잦아들기만 해도 전력망 운영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예측은 이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과 전력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전문가들과 발전 사업자들은 막연한 날씨 정보가 아니라, 더욱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기상정보를 갈구해 왔습니다. 현장의 그 간절한 고민에 답하기 위해 기상청이 준비한 새로운 도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1시간 뒤, 그리고 5일 뒤를 더 촘촘하게

기상청은 9월 29일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꼭 필요한 고해상도 기상예측자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혁신은 시공간의 해상도가 눈에 띄게 촘촘해졌다는 점입니다.

전국을 남한 인근 해상까지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최대 5일까지 상세한 예측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수평면일사량은 물론 기온, 습도, 기압 등



태양광 서비스 기상예측 화면(그림 위), 풍력 서비스 기상예측 화면(그림 아래)

발전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빠짐없이 포함됩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바람의 성격이 고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지상에서의 관측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풍력 터빈의 실제 높이를 고려해 80m, 140m, 220m 고도의 풍향과 풍속까지 상세히 예측해 냅니다.

상세한 예측의 비결은 정교한 수치예보모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중, 3km 해상도로 5일간을 내다보는 '지역모델'과, 1km의 해상도로 2일(48시간) 앞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국지모델'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발전단지와 전력 수요처는 이 기상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며칠 뒤의 발전량을 미리 계산하여 안정적으로 전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만나 탄소중립의 길을 열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활용확산 설명회 및 비즈니스 밋업

아무리 상세하고 뛰어난 자료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기상청은 주요 민간 에너지 기업들과 기상산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활용확산 설명회 및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했으며, SK이노베이션, GS E&R, 유니슨, 코오롱글로벌 등 에너지를 선도하는 민간 기업들과 혁신적인 기상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상청과 산업계는 발전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미선 기상청장의 말씀처럼, 기상청의 예보 기술은 이제 단순히 날씨를 알려주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이라는 친환경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을 읽는 기상청의 정밀한 눈과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바람과 햇빛을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어 가는 과정. 그 가슴 뛰는 동행의 길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산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첫눈을 기다리며

최서연 방송작가

방송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날씨를 보는 눈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첫눈 예보를 들으면 "올해 첫눈은 누구와 보게 될까"를 떠올리지만, 방송국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몇 시부터 오지?", "어디가 제일 많이 오지?", "그림 나오겠는데?"가 먼저 떠오르죠. 낭만보다 촬영 동선이 먼저 생각나는, 조금은 슬픈 직업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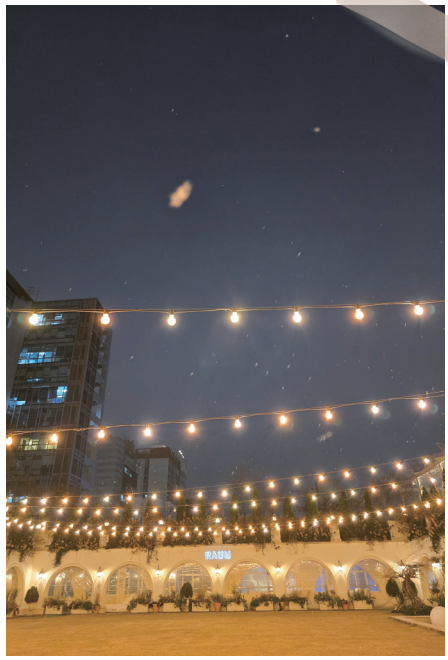
특히 첫눈은 더 그렇습니다. 예보가 있다고 해서 카메라 앞에 제시간에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눈발이 너무 약하면 화면에는 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자리를 잡았는데 눈구름이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면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첫눈 한 장면을 위해 제작진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휴대전화 레이더 영상을 들여다보고, "저쪽은 온대!"라는 말에 장비를 들고 이동합니다. 첫눈을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연인이나 방송쟁이나 비슷하지만 기다리는 이유는 꽤 다른 셈입니다.

게다가 눈은 화면 안에서만 낭만적일 때가 많습니다. 막상 현장에선 카메라 렌즈에 눈이 붙고, 추위 때문에 손은 곱아가고, 인터뷰하는 사람의 입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길에 장비를 들고 뛰다 보면 "이 장면이 꼭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슬며시 고개를 들죠. 하지만 모니터 속에 하얀 눈발이 예쁘게 잡히는 순간, 조금 전까지의 투덜거림은 놀랍도록 빨리 사라집니다. 참 단순하죠?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3년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인데요. 극 중 조선시대에 첫눈이 내리자 한 소녀가 "첫눈 오는 날에는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는다"며 남자 주인공인 도민준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로맨틱한 설정인 줄 알았는데, 이 장면에는 실제 역사 기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18년 첫눈이 내린 날, 상왕 태종이 갓 내린 눈을 봉해 '약'이라고 속이고 형인 정종에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 때부터 첫눈을 봉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받은 사람이 첫눈인 줄 모르고 받으면 한턱을 내고, 미리 알아채 심부름꾼을 붙잡으면 보낸 사람이 한턱을 냈다고 합니다. 600년 전에도 첫눈은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이벤트'였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첫눈을 종이에 싸서 사람에게 보냈고, 요즘 우리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몇 초 만에 전합니다. 방송 제작진은 한술 더 떠 첫눈을 영상에 담아 전국으로 보내고 있죠. 방법만 달라졌을 뿐 첫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에 첫눈 이야기라니 조금 이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첫눈 평년일을 알아보니 놀랍게도 11월 20일이라고 하더군요. 2023년에는 11월 17일, 2024년에는 11월 26일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첫눈이 곧바로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이어졌죠. 첫눈은 때로는 예고편처럼 살짝 얼굴만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첫 등장부터 주인공처럼 모든 장면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늘 조금 재밌습니다. 누군가는 창가에서 소원을 빌고, 누군가는 카메라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니까요. 같은 눈을 보고도 각자의 하루는 이렇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올해 첫눈은 언제 찾아올까요? 첫눈 소식이 들리는 날 저는 아마 또 휴대전화로 날씨부터 확인할 겁니다. 낭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낭만 앞에 촬영 가능 여부가 한 줄 더 붙었을 뿐이죠. 그래도 카메라 화면 속으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오는 순간만큼은 저도 잠시 제 일을 잊게 될 것 같습니다. 첫눈은 그렇게 매년, 가장 바쁜 사람까지도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계절의 작은 마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11월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절이 건네는 작은 설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길 잃지 않으면 생의 값진 경험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화 '오디세이'(2026)

김동진 작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맷 데이먼)는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타카에서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목적지만 놓고 보면 간단한 여정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낯선 섬에 도착하고, 겹겹이 일어나는 악재 속에 동료들을 잃고, 기이한 존재들을 만나며 번번이 고향에서 멀어진다. 그가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에게도 똑같이 세월이 흐른다.

영화 <오디세이>(2026)의 시작 부분 첫 자막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을 "마법이 명백히 존재하던 시대(A Time of Apparent Magic)"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오디세이>에서 신들은 인간의 눈앞에 모습을 직접 드러내 명령하거나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천둥이 치고 파도가 거칠어지며 바람이 방향을 바꾼다. 그것이 신의 뜻인지 우연한 자연현상인지, 혹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는 바다 위에서 무언가를 읽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과 바다의 변덕 때문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트로이에서 보낸 10년의 전쟁과 그 마지막 밤에 대한 기억이 있다. 승리를 위해 목마를 만들었고, 적들이 아테나 신에게 바치는 징표라 믿고 성 안으로 들여놓은 목마를 이용해 철옹성 같던 트로이 성을 함락했다. 오랜 전쟁은 끝났지만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오디세우스가 얻은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의 질서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본다.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낸다 해도,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 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가 겪은 모험의 크기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그의 여정이 본인이나 타인에 의해 계속해서 이야기된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텔레마코스에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전하고, 오디세우스 역시 자신이 지나온 전쟁과 항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 사람에 따라 이야기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고





출처: 네이버

기억과 전언은 서로 포개진다. 누군가에게는 영웅의 무용담이었던 사건이 당사자에게는 평생 떨쳐내기 어려운 후회일 수도 있다. 같은 시간을 지나왔어도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은 다른 모양을 갖는다.

우리는 길을 잃는 것과 목적지를 잃는 것을 종종 같은 일처럼 생각한다.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나거나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 잘못 가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보낸 긴 시간을 보고 있으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어느 섬에서는 너무 오래 머물렀고 어떤 바다에서는 가고 싶은 방향과 정반대로 떠밀렸다. 항해술이 지금처럼 발달돼 있지 않았던 시대, 그 모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가 끝내 놓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돌아간다는 것이 떠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를 떠난 뒤 너무 많은 계절이 지났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직접 찾아 나설 만큼 자랐고 페넬로페에게도 기다림으로 보낸 세월이 쌓였다. 20년. 오디세우스 자신도 동료 전우들을 잃고 전쟁과 항해의 기억을 몸에 새긴 사람으로 돌아온다. 고향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돌아온 사람 역시 떠났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어쩌면 귀환이란 달라진 내가 달라진 그곳을 다시금 알아보는 일인지도 모른다.

영화 속 바다는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잔잔하게 햇빛을 반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검게 일렁이고, 바람의 방향이 함선을 목적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인 동안에도 해는 수평선 너머로 뜨고 지며 사계절은 계속 흐른다. 자연의 시간 앞에서 한 사람의 10년, 20년은 어쩌면 그저 수없이 반복된 낮과 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간을 노래와 이야기로 남긴다.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끝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11월이면 한 해 동안 계획했던 것들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을 헤아리거나 생각보다 멀리 돌아온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난 것은 아니다. 길을 조금 잃었다고 해서 가고 있던 방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되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쪽으로 걸어갈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바람은 또 방향을 바꿀 것이고 해는 오늘보다 조금 일찍 저물겠지만, 돌아갈 곳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움직일 시간이 남아 있다.



출처: 네이버



출처: 네이버

맛있는 계절

붉게 익어가는 늦가을 별미, 대하 볶음면



이주현 푸드칼럼니스트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서해 바다부터 먼저 붉어진다. 해가 일찍 지는 만큼 노을 빛깔도 더 진해진다. 그 바닷가 어귀에서 굵은소금 위에 올린 새우가 탁탁 소리를 내며 익어간다. 고소하고 달큼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저 멀리 퍼져나간다. 그러면 발걸음이 저절로 멈출 수밖에 없다. "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하 축제는 대부분 끝이 났다. 그래도 아쉬워하기엔 이르다. 대하의 단맛은 초겨울까지 이어진다. 노을도, 단풍도, 불 위에서 익어가는 대하 껍질도 모두 같은 빛깔이다. 늦가을은 붉은 것들이 맛있어지는 계절이다. 대하의 진가를 맛볼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붉은 껍질 속에 담긴 영양

대하(大蝦)는 말 그대로 큰 새우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살이 오르고 단맛이 진해진다. 단맛을 내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9월부터 초겨울까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념을 거의 하지 않고 구워도 감칠맛이 충분하다. 충남 홍성 남당항, 태안 안면도, 보령 무창포가 대하로 이름난 곳이다.

제철을 맞은 만큼 영양도 알차다. 대하에는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은데 단백질은 넉넉하다. 칼슘과 인도 들어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대하가 익으면서 붉어지는 건 껍질 속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가 드러나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껍질과 머리에는 키틴이라는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키토산의 원료인 키틴은 노폐물 배출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 성분들이 머리와 꼬리 쪽에 몰려 있으니 가능하면 통째로 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신선한 대하 구매 & 보관법

대하는 몸통이 투명하고 껍질이 단단하며 윤기가 도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꼬리 색이 탁하면 피하는 게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하와 꼭 닮은 새우가 있다. 양식 흰다리새우다. 맛은 크게 다르지 않다지만 대하가 대체로 비싼 만큼 구별은 해두는 게 좋다. 대하는 머리 앞쪽에 솟은 뿔(이마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수염이 몸길이보다 길며, 꼬리 끝이 녹색을 띤다. 흰다리새우

는 이마뿔이 짧고 꼬리 끝이 검붉다. 수조에서 팔팔 뛰는 새우는 흰다리새우일 가능성이 높다. 자연산 대하는 잡히고 몇 분 안에 죽기 때문이다.

바로 먹지 않을 거라면 수염과 다리를 정리하고 내장을 뺀 뒤 소금물에 씻는다.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 냉동해 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한 해를 살고 가는 새우

새우는 옛 그림에서 조개와 함께 등장하며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길상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대하라는 이름도 조선 전기 문헌에 일찌감치 나온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안 등 여러 지방의 토산물로 올라 있고, 『규합총서』에는 생새우꼬치구이와 대하를 넣은 열구자탕이 소개되어 있다. 우리 밥상에서 꽤 오래 귀한 대접을 받아온 해산물이다.

그런데 이 귀한 새우의 삶은 의외로 그리 길지 않다. 대하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 서해에서 알을 낳는데, 수명은 약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무렵 태어난 어린 대하는 여름 동안 부쩍 자라 가을에 우리 식탁에 오른다. 잡히지 않은 대하는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 산란을 마친 뒤 생을 마친다. 가을 대하 한 마리에는 이렇게 짧고도 분주한 생의 시간이 담겨있다.

소금구이 말고 대하 볶음면

대하라고 하면 소금구이가 먼저 떠오른다. 그게 정석이다. 하지만 바람이 차가워지는 11월에는 화끈하게 불맛이 도는 매콤한 음식도 당긴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하를 두반장 소스에 볶았다. 매콤달콤한 두반장 소스가 대하의 단맛과 만나면 감칠맛이 확 살아난다. 여기에 밀가루 대신 콩으로 만든 두부면을 넣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한다. 붉은 노을 같은 소스에 붉게 익은 대하를 볶아내 보자. 늦가을 제철을 맛볼 수 있는 한 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대하 볶음면

필요한 재료

두부면 1인분, 대하 6마리,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양파 1/3개. 미림 1큰술, 전분물, 청고추, 홍고추

* 마파소스 : 두반장 1큰술, 물 300ml, 간장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소금·후추(기호껏), 통깨

만드는 과정

1.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파, 마늘을 넣고 볶다가 채 썬 양파를 넣고 볶는다.



2. 껍질을 제거한 대하를 넣고 미림을 1큰술을 넣고 볶아준다.
   * 잘 세척하여 껍질째로 넣어도 좋다.



3. 분량의 마파소스 재료를 넣고 중불에서 익힌다. 양파가 투명하게 익으면 전분물을 넣고 농도를 맞춘다.



4. 두부면, 홍고추. 청고추를 넣고 잘 섞어준다. 부족한 간은 소금, 후추로 맞추며 통깨를 뿌려 완성한다.



인생도 날씨도 완벽한 답은 없다

김아영 내일신문 기자





"어머, 저 구름 좀 봐라. 갈빗대 모양 같은데? 내 수술 부위랑 비슷하네? (웃음)"

올해 한가위를 병상에서 보내신 어머니가 지친 딸을 위해 우스개처럼 건네신 말씀입니다. 정작 큰 수술을 치르신 당신께서는 병간호에 힘들지 않냐며 튼튼한 딸 걱정에 여념이 없으셨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어머니 모습을 지켜보는 게 슬펐지만 하늘만큼은 쨍하도록 예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피어오른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계셔야 하는 어머니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구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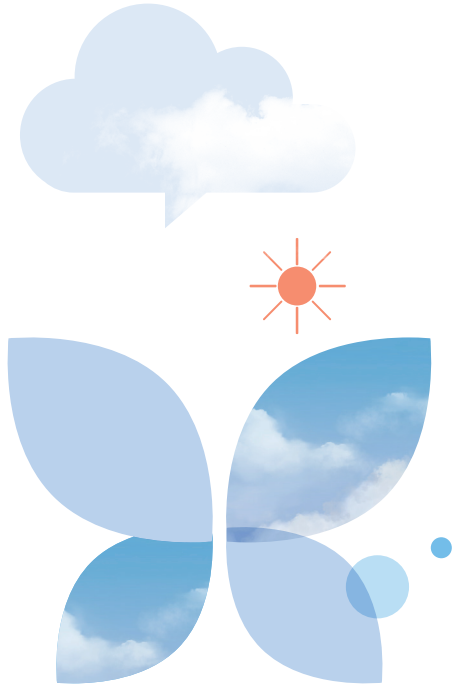
"엄마 국민학생(현 초등학생) 때만 해도 새털구름, 양떼구름 같은 구름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구름 이야기는 어느새 치열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지나온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딸이 조금이라도 덜 헤매고 현명한 길을 고르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죠.

어쩌면 날씨 예보와 우리 인생은 닮은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 예보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바람과 물, 구름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바탕에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래 가던 힘(관성) △밀어내는 힘 △끈적임 △바깥 힘을 한꺼번에 따지면, 물이나 공기처럼 흐르는 물질이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갈지 알 수 있다는 게 이 방정식의 원리죠.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200년이 넘도록 이 방정식의 완벽한 답을 구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인생에 뜻밖의 사건이 끼어들듯 '난류'가 생기면 작은 차이가 순식간에 커지면서 계산이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식을 풀 수 있다 해도 내일 날씨를 정확히 맞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961년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발견한 현상, 이른바 '나비효과'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날씨 모델에 넣을 숫자 하나를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쓰는 대신 셋째 자리까지만 줄여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차이가 일으킨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훗날 그가 든 비유에서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처음의 아주 작은 차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 현상은 뜻밖의 사건 하나로 우리네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과도 닮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보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보관들은 하늘을 바둑판처럼 잘게 나누고, 칸마다 관측한 기온·바람·습도 같은 각종 자료를 넣어 계산합니다. 풀리지 않는 식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일의 날씨를 내다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찾아온다는 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답만 고집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답을 찾는 사람은 계속 걸어갑니다. 예보관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확률로 내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돌이켜보면 저는 정답에 집착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어머니는 구름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에도 정답은 없었다고, 그저 그날그날 최선을 골랐을 뿐이라고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에도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습니다. 갈빗대 구름은 이미 흩어지고 없었죠. 구름은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보는 매일 새로 쓰입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 써 나갈 것입니다. 완벽한 답 대신 충분히 좋은 답을 찾아가면서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뿐인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채워 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높은 하늘의 날씨는 어떻게 관측할까?

고층기상관측 알아보기

곽나경 제18기 국민정책기자단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올지 걱정하고,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보이는 하늘의 모습만으로 앞으로의 날씨를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상에서는 바람이 약하게 불더라도 상층 대기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고, 대기의 기온과 습도 등도 높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기예보는 지상뿐 아니라 상층 대기의 관측자료도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특히 위험기상의 발생 가능성과 대기의 움직임을 분석하려면 높이에 따른 대기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층기상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하늘의 날씨는 어떻게 관측할까요?

높은 곳의 대기를 관측합니다

고층기상관측은 대기의 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높이에 따른 기상요소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기온·기압·습도·바람 등의 자료를 수집해 상층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상층일기도 작성과 수치예보모델 등에 활용되며, 일기예보 생산과 위험기상 분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기구를 띄워 직접 관측합니다

레윈존데는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를 측정하며, 관측된 자료는 지상으로 전송·수집됩니다. 기구에 매달린 센서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동안 고도별 대기 상태를 관측합니다. 레윈존데는 지상으로부터 약 30㎞까지의 고도별 기상요소를 측정합니다. 포항, 국가태풍센터, 백령도, 흑산도, 창원, 추풍령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상층 대기를 관측합니다

고층기상관측은 기구를 직접 띄우는 방식 외에도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합니다. UHF 전파를 이용해 대기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연직바람관측장비는 대기로 전파를 발사한 뒤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높이에 따른 바람의 변화를 관측합니다. 기구를 띄우지 않고도 같은 지점에서 상층 바람을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평 풍향과 풍속 그리고 대기의 연직운동을 관측합니다.

고층기상관측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상청은 주기적인 고층기상관측을 통해 상층의 대기자료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이 발생할 때는 특별관측을 추가로 실시해 대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고층기상관측자료는 국내 예보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기와 기후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국제 관측망을 통해 공유되는 자료는 다른 지역의 대기 상태를 이해하고 전 지구적 기상 현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날씨예보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관측



고층기상관측자료는 상층일기도 작성과 수치예보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상 관측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층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예보관이 날씨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고층기상관측자료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측자료를 직접 살펴보면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일기예보가 다양한 관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너머에서도 관측은 계속됩니다. 기상청의 고층기상관측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의 변화를 파악하고, 보다 정밀한 예보와 위험기상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기상청 블로그에 실린 것을 편집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상청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



쉬는 날 뭐허멘?

제주기상과학홍보관 보레 가게!



최현진 제주지방기상청

한라산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제주 도민들에게 날씨와 기후변화를 쉽게 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기상과학홍보관입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직접 체험하며 제주의 날씨와 기후를 배우는 '살아있는 기상과학 체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홍보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주의 유일무이한 기상·기후 교육 체험 기관

2015년 3월 개관 이후, 제주기상과학홍보관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로 제주의 기상과 기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기상청 업무 소개, 지구ON·토네이도 발생기 등 다양한 체험시설, 베테랑 기상기후해설사의 눈높이 교육으로 구성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주기상과학홍보관은 2016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주지역 유일의 기상·기후 분야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구ON 해설 모습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10주년 인증패



제주청 근대 100년사 해설 모습



행동과 공감의 참여형 콘텐츠

제주기상과학홍보관은 방문객이 수동적인 관람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기상과 기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의 단골손님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활동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홍보관 구석구석을 탐험하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아이들은 기상관측의 역사와 일기예보의 과정, 기후변화 등 기상·기후과학의 전반을 아우르는 실내 전시실부터 기상관측장소와 계절을 알리는 관측목(매화, 진달래, 벚나무 등)이 있는 실외 공간까지, 활동지를 따라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연필을 쥐고 활동지의 미션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의 기상과 기후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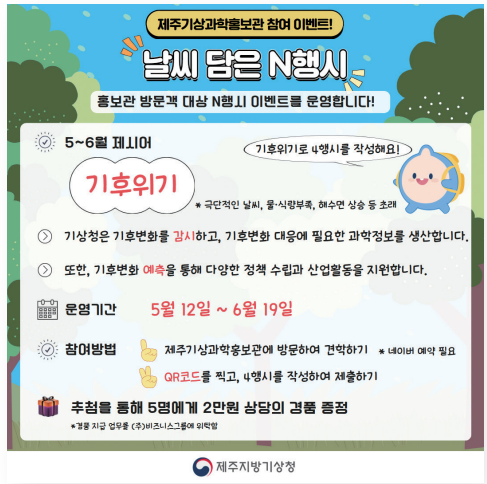


홍보관 활동지



홍보관 활동지 체험

이처럼 직접 홍보관을 체험하는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회하기 전에 지구를 지키자. 위험해진 바다와 숲을 위해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자". 이 문장 속에서 '기후위기'를 찾으셨나요? 이 문장은 제주기상과학홍보관 참여 이벤트 〈날씨 담은 N행시〉의 우수작품입니다. 홍보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날씨 담은 N행시〉 이벤트는 소소하지만 N행시를 짓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기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심각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방학엔 더 특별하게! 관람의 깊이가 더해지는 기후·문화 체험교실



방학 기간에 홍보관은 어린이 손님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방학 시즌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여름·겨울방학 기후문화 체험교실'이 활짝 문을 엽니다.

지난 겨울방학(1~2월)에는 아이들이 기상과학의 원리를 몸소 체험하며 스스로 꼬마 기상학자가 되어볼 수 있는 생생한 배움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존재를 이해하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직접 확인하는 '기압 감압 실험', '구름 발생 실험'을 진행하였고, 야외에서 휴대용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해 실제 기상요소를 직접 측정하고 기록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며 일일 기상 관측자가 되어 색다른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방학(7~8월)에는 '제주의 기후와 음식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제주의 독특한 음식문화가 제주 기후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직접 '미래 식탁'을 차려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의 식생활과 먹거리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짚어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담은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활동으로 작지만,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활동


겨울방학 기후문화 체험교실 활동(기압감압실험)


여름방학 기후문화 체험교실 활동(미래식탁 차리기)

작지만 이해와 공감이 가득한 공간

제주기상과학홍보관은 제주지방기상청 1층 로비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공간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알차고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홍보관을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늘어났고, 2025년에는 무려 3,818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주기상과학홍보관은 앞으로도 제주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기상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기후위기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에 오건들랑 제주기상과학홍보관으로 꼭 놀러옵써예!*

* 제주도 오면 제주기상과학홍보관으로 꼭 놀러 오세요!



섬과 바다, 기후와 사람을 잇다

이 지 은 광주지방기상청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해양기상의 가치를 전하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푸른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국제 행사였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도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관람객들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과학관은 단순히 기상 지식을 전달하는 전시 공간을 넘어, 바다의 날씨가 우리의 일상과 안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험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섬과 바다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공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 생일섬엔 오늘 어떤 바람이 불까?" 날씨를 읽는 사람들

"바람 보퍼트 풍력계급 5급, 파고 2m… 오늘 배 띄워도 될까요?"
특별해설 프로그램 '생일섬, 바다와 우리를 잇다'에서는 관람객들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활동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여수의 섬 365' 아카이브에서 자신의 생일과 연결된 '나만의 섬'을 찾고, 그날의 해양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출항 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는 체험이 매주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보퍼트 풍력계급과 파고 정보를 함께 살펴보며, 바람의 세기와 해상 상태를 읽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단순히 날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상 정보가 해상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해설 프로그램 '생일섬, 바다와 우리를 잇다'

기상을 배우는 즐거움, 기후를 이해하는 첫걸음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체험교육 '무인도 생존 대작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응결 현상을 이용하여 식수를 확보하고, 해륙풍의 원리를 활용해 피난처를 찾는 등 기상 원리를 직접 적용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생존 미션 체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흥미를 더하는 동시에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현실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섬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무인도 생존 대작전' 교육 프로그램

언어의 벽을 넘어, 더 가까이 소통하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찾는 박람회인 만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누구나 언어의 제약 없이 해양기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 서비스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과학관의 대표 콘텐츠인 360도 특수영상관에는 기존 한국어 해설에 더해 영어·중국어·일본어 오디오 해설을 추가했고, 주요 전시 정보를 담은 다국어 QR 해설과 전자 리플릿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외국인 관람객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모국어로 전시 해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영상관 다국어 오디오 구축



외국인 관람객 안내 가이드



다국어 QR 해설





여수 엑스포 체험 부스

과학관 밖에서도 관람객과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여수엑스포 부지에 마련된 체험 부스는 박람회장을 찾은 이들이 잠시 쉬어가며 기상과 기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현장 VR 체험과 이벤트는 과학관의 전시와 콘텐츠를 알리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었으며, 해양기상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날씨를 읽고, 섬의 미래를 생각하는 곳

섬은 바람과 파도, 높은 수온과 해수면 변화 등 해양환경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섬에서 해양기상 정보는 단순히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정보에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 배를 띄울 수 있는지, 언제 바다에 나가도 되는지, 위험한 날씨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생활과 안전의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축적된 해양기상·기후 자료는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이러한 해양기상·기후의 가치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 체험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섬과 바다, 기후와 사람을 이어주는 과학문화 공간으로서 바다의 날씨를 더 쉽고 가까이 전하고 해양기상·기후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를 기다립니다

오익현 국립기상과학원

60년 넘게 감귤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에게 날씨는 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햇빛이 매섭게 찌르던 날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농사를 곁에서 돕다 보니 어느새 주말이 다가오면 먼저 날씨부터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씨와 함께 흘러가는 부모님과 저의 한 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햇살을 기다립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3월, 감귤밭의 한 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위로 치솟은 가지와 썩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나무 안쪽까지 햇볕과 바람이 잘 들도록 가지를 정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온 어머니는 차가워진 손과 몸을 뜨거운 차로 녹이며 제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하루도 놀멍 못 산다. 부지런해사 곱딱한 감귤이 나오는 거여."

감귤밭에 따라다니기 싫어했던 철부지 꼬마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면 넉살스럽게 받아넘기며 서둘러 일을 시작합니다. 가지치기가 끝나고 봄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면 겨울을 견딘 감귤나무가 기운을 되찾고, 새순을 틔울 수 있도록 봄비료를 뿌리며 그렇게 감귤밭의 봄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햇살이 이어지고 비가 잠시 쉬어가기를 기다립니다

4월이면 연둣빛 새순이 돋고, 5월이 되면 하얀 감귤꽃이 만개해 꽃향기가 밭 전체에 퍼집니다. 이 무렵 부모님은 비 소식이 오래 이어지면 새순과 감귤꽃에 병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만, 흙을 촉촉이 적실 만큼의 보슬비 소식이 있는 날에는 "잘도 비료 주기 좋은 날이여" 하시며 금세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살며시 내리는 보슬비에 비료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 것 같아 마음도 한결 놓이시는 듯합니다. 같은 비인데도 그날 해야 할 일에 따라 반갑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을 기다립니다

초여름이 되면 부모님의 일손이 부쩍 바빠집니다. 비가 오래 이어지면 비가 그친 날을 골라 방제를 서두르고, 무성히 자란 잡초와 감귤나무 사이로 파고든 덩굴을 걷어냅니다. 태풍 소식이 들리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감귤이 많이 달린 가지는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한여름에 접어들수록 뜨겁게 달궈진 지면과 차가운 상층의 기온 차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도 잦아집니다. 그럴 때면 잠시 일을 멈추고 비를 피했다가, 빗줄기가 잦아들면 다시 밭으로 나가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 맞춰 하루의 농사일을 이어갑니다.







메마른 감귤밭에, 반가운 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여름철 부모님의 감귤밭에는 평년보다 비가 덜 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감귤나무와 땅이 말라가고, 수분이 부족해 과실도 좀처럼 굵어지지 않는 데다 낙과가 많아지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기다리던 비가 좀처럼 오지 않으면 결국 스프링클러를 연결해 밭에 물을 주는 관수작업을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부모님이 무리하지는 않을까 걱정돼 저는 출근 전 새벽마다 먼저 밭으로 나가 물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다 일기예보에 반가운 비 표시가 보이면 부모님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 안도를 합니다. 힘들었던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감귤도 조금씩 제 빛깔을 찾아갑니다.

추억 속 그 맑은 늦가을날을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수확철이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감귤밭으로 모여 함께 귤을 따고,
점심때가 되면 밭 한쪽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몇 해 전 수확철 사진을 보면 감귤밭에 모여 일하던 부모님과
가족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새벽마다 감귤밭에 따라가는 일이 마냥 싫어 짜증도 내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주말이 다가오면 먼저
날씨를 확인합니다. 비가 오는지, 바람은 세지 않은지,
햇볕은 너무 뜨겁지 않은지 살피다가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평생 하늘을 먼저 보며 하루를 시작했던 부모님의 습관이 어느새 제게도 옮겨온 모양입니다.



그렇게 날씨는 부모님의 하루를 떠올리고 안부를 묻는 작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잠시 둘러앉아 쉬는 평범한 날들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날씨를 기다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지진재난 대응 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9월 17일)



기상청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김태선 의원 주최로 「경주지진 10년, 지진재난 대응 발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출범식
(9월 29일)



기상청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기상·전력 융합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회
(10월 15일)



기상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상·전력 융합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제2차 에어로졸 관측-기후모델 국제워크숍
(10월 20~22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2차 에어로졸 관측-기후모델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기상청 날씨지도 서비스 활용법 안내 영상



3분이면 누구나 쉽게 배우는 기상청 날씨지도 완전 정복!

#신규서비스 #날씨지도 #튜토리얼

날씨예보부터 실시간 관측정보까지, 이제 지도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상청이 새롭게 선보인 '날씨지도'에서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바람·기온·습도 예측정보를 3차원 구형 지도로 살펴보고, 전 세계 원하는 지역의 기상 예측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네예보와 실시간 현장 CCTV를 지도 위에 함께 표시하고, 레이더 강수자료로 비구름의 이동 방향을 파악하며 위성·자동기상관측장비(AWS) 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까요? 날씨지도 서비스를 준비한 기상청 담당자가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의 접속 방법부터 주요 기능과 활용법까지 3분 안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상청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활용해 보세요!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자료 〉 기상간행물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보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 X(트위터) x.com/kma_skylove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서지희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부여 고란사에서 바라본 백마강 풍경입니다.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을 벗 삼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더없이 좋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향화

황화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한해살이풀로, 뜨거운 여름볕을 견디며 자라 가을까지 노랑이나 오렌지 색깔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잎의 모양이 일반 코스모스보다 더 넓고 톱니모양으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네요.



우윤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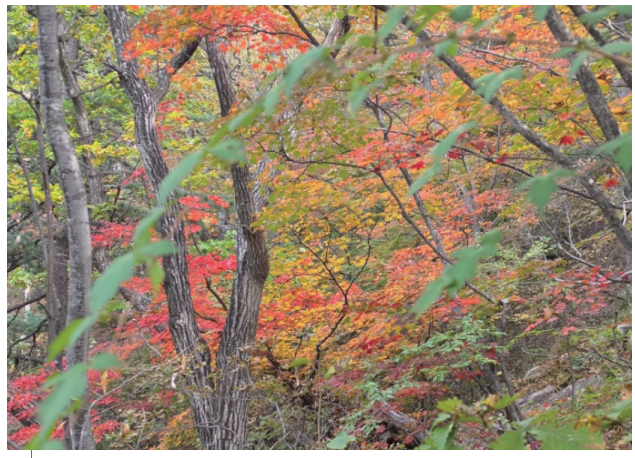
핑크뮬리는 벼과의 다년생식물로,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분홍빛 물결처럼 펼쳐진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 길 가던 행인들의 걸음을 멈추고 한참 보게 만드네요. 꽃 뭉치가 아주 풍성하고, 꽃은 작은 이삭 모양으로 납작하게 핀답니다. 꽃말은 고백이나 수줍은 사랑이라 하네요.



이경화
겨울이 다가오기 전 가을의 햇살을 느끼려 산책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걷다 가득 피어난 황화코스모스를 마주했는데 햇살과 바람에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은경
붉게 물든 노을과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강영숙
국립공원 설악산의 눈부신 오색단풍을 만났네요. 가을꽃 향기도 더해져 매력적입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11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취 가격이 기준가격(생산비용) 아래로 하락 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 매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 확정, 대상품목 확대도 추진



<2026년 농산물가격안정제 알아보기>

대상

'27년산 마늘·양파

1,000㎡(10a)이상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

발동여부 '27년 11월 초 결정
발동 시 '27년 11월 이후 지급

100% 받는 법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해요!

미납부 시 20% 차감하여 80% 지급

문의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1644-8778
자조금 납부 1577-0345

필수사항

원칙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

재배면적 신고기간

'26.10.12.~'26.11.30.

주의할 점 : 작형·작기 선택 필수

- (마늘)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
- (양파)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마늘 경작신고 바로가기

양파 경작신고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2026-2027절기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지 포인트

1 대상 및 일정

어린이
(2012. 1. 1. ~ 2026. 8. 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자: 9. 21.(월) ~
- 1회 접종 대상자: 9. 21.(월)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9. 21.(월) ~

65세 이상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75세 이상: 10. 6.(화) ~
- 70~74세: 10. 12.(월) ~
- 65~69세: 10. 15.(목) ~



2 백신 및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접종 가능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에서 사전 확인

3 백신효과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진행
약 60~70% 예방



질병관리청 <'24~'25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효과 평가> 결과, 고령층에서 중증 진행 예방효과 확인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